

#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인터뷰어\_김승욱 (발행인, 중앙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인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30일에 은퇴식을 가졌다.  
본보 발행인 김승욱 교수가 그를 만났다.



**김승욱** :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의 김의원 부이사장님께서 은퇴하셨는데, 이번 호에서는 송인규 이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한국 세계관 운동의 1세대들이 이제 강단에서 은퇴하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는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합신에 오시기까지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송인규** : 1974년에 건국대 축산학과에서 농학사를, 1980년에 총신대학교에서 M.Div를, 1984년부터 칼빈신학교에서 M.A. 및 Th.M.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에서 1996년까지 시라큐스대학에서 M.A. 와 Ph.D.를 취득했습니다. 신학 기본 과정은 총신에서 이수하였지만, 저를 가르치던 분들이 합신 쪽에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 1996년 8월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18년간 합신대학원대학교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욱** :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도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오래 전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는 소책자를 통해 이원론에 빠져서 영혼구원에만 전념하는 복음주의에 경종을 주셨고,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시절부터 세계관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여러 기독교 학회에서 하신 기독교 학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 강연과 시리즈 강의 등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세계관 운동에 힘써 오셨는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송인규** : 세계관 운동의 시작은 80년도 초 웨슬리(Wesley Wentworth)의 소개로 만난 윌리엄 쇼어(William Hamilton Shaw)와 함께 IVF 사무실에서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의 *The Universe Next Door*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IVP, 1995)를 공부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박사과정으로 조선법제사를 연구하던 윌리엄 쇼어(그는 한국 감리교 선교사의 3대째 후손이었다고 함)와 몇몇 대학원생들은 사이어의 책을 한 챍터씩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VF 총무였던 저는 바쁜 일이 많아 그 그룹에 합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세계관 운동이 활발해지던 1983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관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1982년 IVF 학사회보에 4번에 걸쳐 연재했던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가 책으로 출판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를 세계관 운동과 연관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흥왕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를 지나 96년도에 귀국해 보니 두 가지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열성을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기독교 학문 운동을 전개하던 기학연이 대표적이었고, 기독교 대학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려는 교육자들(한동대가 대표적 예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사변적이라느니,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도 바뀐 것이 없다느니 하는 것이 가장 흔한 불평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반적 입장이 2002년 <복음과 상황>의 지면을 통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 보자면 요즘은 청년부나 대학부뿐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개념이 옛날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IVP에서는 전부터 계획해 온바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다』의 개정판 발간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제가 쓴 책이 2008년 출간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입니다. 원래 제가 정한 제목은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였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성경 인용과 해설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이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철학적·이론적 형식을 취해야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승욱 :** 말씀하신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도 그렇지만,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평신도 신학입문』(e-book)이나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1,2』 등도 결국 세계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결국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인규 :** 우선 저는 기독교 세계관과 평신도 신학 사이에 크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면, 목회자 계층에 비해 열등한 신분인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 신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 - (1) 평신도도 신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동등하다는 만인제사장적 위상을 밝히는 일, (2) 평신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이루어 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 수행이 책임으로 주어졌음을 깨우치는 일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가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과 일부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느냐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 인간, 문화, 사회를 포함한 모든 피조계를 창조·타락·구속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범주 가운데 한 분야가 사회이고, 이 “사회”는 평신도 신학에서 다루는 “세상살이”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세상살이”가 너무 넓고 다소 모호한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인데, 이것이 세계관 관련 도서에는 자세히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삶을 다룰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명칭보다 오히려 “평신도 신학”이라는 어구를 활용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곧 세상살이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핀 내용이지요.







**김승욱** : 저희가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관 운동이 너무 지성주의로 흘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에도 전반부는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 적용이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각 전문 영역,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영역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성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인규** :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에는 세 가지 정도의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비록 크리스천 지성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부지중에 자신들을 기독교 세계관의 전문가로 기독교 세계관을 자

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거나 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자랑하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앞의 이유들과 연관되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논쟁·공박을 주고받는 걸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논쟁이 100%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비판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은 개념과 주장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



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 영성, 심지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주장, 설명은 자연스럽게 이론적 규명 행위 및 지적 활동과 연관이 됩니다. 가만히 느껴 보라고 하거나 의지를 발동함으로써만은 개념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 작업은 모든 사안에서 마찬가지인데, 유독 기독교 세계관만이 잘못된 것처럼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들 대부분이 서양 저자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저술은 기질 및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그 당시 평균 수준의 사람들을 경건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서양과 우리는 종교에 있어 이성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강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머니즘 문화가 주요 바탕이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 지적 기능이나 활동을 거의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저 경건 서적인 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려운 공부거리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성적인 기능이 강조된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셋째, 어떤 분야는 그야말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학문과 신앙의 양립성 문제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문의 내용과 신학을 함께 다뤄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양상조차 지성주의라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지성주의라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과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하는 일이야말로 세계관 운동이  
지성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잡재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기독교 지성인들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인이 자량이 아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봉호 교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세우지 않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어쨌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인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엇을 하면 교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용어를 늘어놓기보다 가능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과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하는 일이야말로 세계관 운동이 지성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잡재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욱 :** 공감합니다.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는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문화적 조류의 영향으로 기독교도 영성이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 속에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들도 남아 있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송인규 :**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생겼다고 볼 수 있지요. 모더니즘이 강조하였던 이성과 과학적 사고의 우선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은 전부 부인하며 뭐든지 이성과 반대되는 건 다 좋다고 보는 식입니다. 이성에 대한 반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 이성과 신비, 이성과 계시,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동은 일차적으로 서양의 사상사에서 발생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반동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서양과는 다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우선 서양의 모더니즘은 그 형성과 발전에 있어 적어도 200~300년을 거쳤습니다. 개인주의도 모더니즘의 한 갈래로 본다면 존 로크(John Locke)의 존재론적 개인주의가 300년을 지속하고 난 이후 반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양과 같은 모더니즘의 시대가 없었고, 것처럼 철저하고 편안하게 모더니즘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동 조치가 서양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는 과거부터 잔재해 있던 샤머니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몽골부터 시베리아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승욱** : 카리브해의 아이티 등도 기독교인이 거의 100%지만, 거기도 샤머니즘 요소가 매우 많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샤머니즘 영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송인규** : 그렇죠. 전부 토속 신앙과 섞여서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지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만나면 매우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기독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앙에 있어 지성의 역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샤머니즘에는 경전이 없어 지적 전통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속적 신앙이 강한 문화 토양에서 자란 우리는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정밀성 등이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포스트모더니즘 식의 열광, 감정 위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온다면 악이 더 가세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는 포스트모던과 관련된 관념이나 개념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포스트모더니즘을 너무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모든 문화적 현상을 싸잡아서 무조건 포스트모던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에게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균형입니다. 만일 내가 너무 합리성에만 치우쳐 있다면 감성과 종교적 정서(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한 대로)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각 개인은 자기를 살펴서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적 수준에서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부는 어떤가, 청년부는 어떤가, 기학연은 어떤가, 교수들은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어떤 식의 균형이 필요한지 따져 보고 그에 맞춰 가야겠지요.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들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처음 분석철학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지적으로만 치우쳐서 신앙이 강박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QT 본문을 전부 시편으로 바꿔 버렸어요. 시편에는 감정 표현이 빈번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모더니즘의 특징 일부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정밀성 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일부 모더니즘의 특징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처럼 극단으로 흐르든지 도를 지나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김승욱:** 한국 교회에는 모더니즘의 특징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모더니즘이 서양의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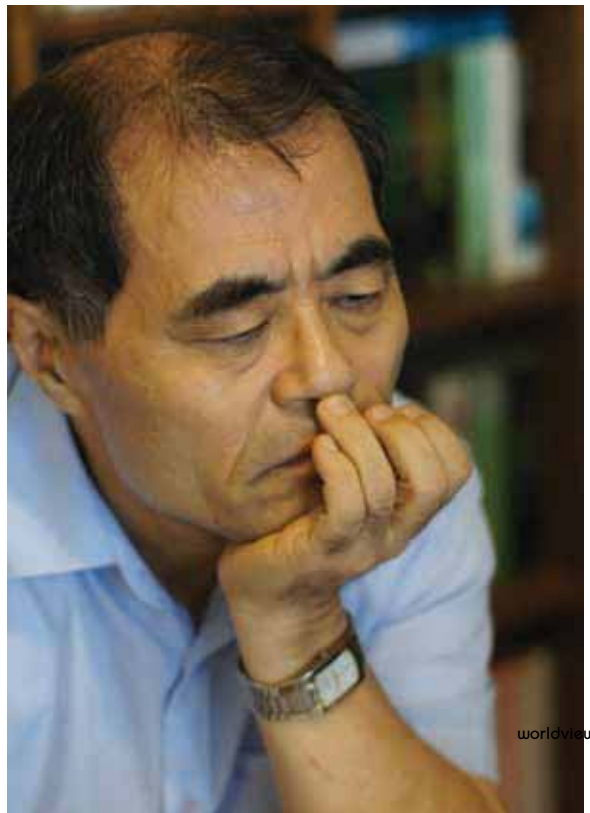
**송인규:** 서양에서는 그런 특색이 극단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의 그런 역사를 운명론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스콜라주의(Protestant scholasticism)가 발흥한 사실을 주목하는데, 이것은 신학의 내용을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지적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다수의 학자들이 칼빈 이후의 신학자들이 칼빈을 변질시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리처드 멀러(Richard Muller) 같은 학자는 칼빈 이후의 학자들이 근본적으로는 칼빈과 같은 정신을 공유하되, 단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론적 정교화의 방도를 채택했을 뿐 연속성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독교 신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 방식으로 흐르면서 신학적 자유주의를 배태하는 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이든 반대가 지나쳐서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강조할 때 선을 그어 반대편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합리성과 효율성, 또 정밀성 등을 강조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적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늘 성경의 권위나 무오성 등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머니즘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서양과 같은 지나친 합리주의의 탓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욱:** 세계관 운동이 이원론을 극복하자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좀 극복이 되었다고 보시지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송인규:** 이원론의 극복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아진 점은 두 가지 면에서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원론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좀 더 편만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과목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기독교영연구원(기경원) 등 교육 분야와 몇몇 특정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하여 이원론을 극복해 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열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피조계를 향시 그리스도의 주 되심(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조망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정신적 습관”(mental habit)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性)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일이 정신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연관시켜야 할 분야/주제/사안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원론이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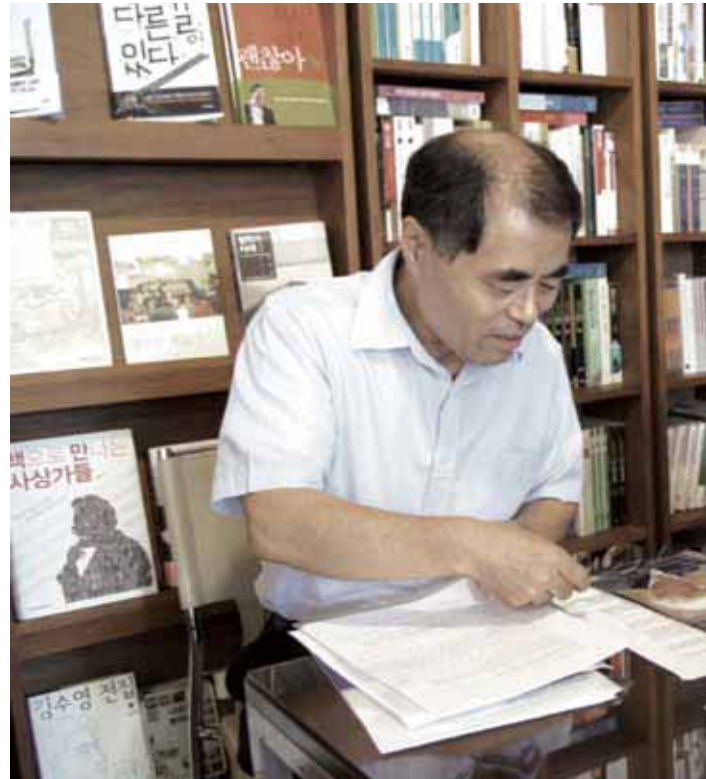


니다. 곧 출간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개그와 기독교 세계관을 연관시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살펴보아야 할 주제나 사안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 대중문화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모든 사안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그 영역에서 세속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영역이 워낙 많으니 이원론의 세력이 여러 곳에서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도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세속적 세계관/가치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도 그것이 결국 이물질처럼 마음에 떠다니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벌 위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중시할 뿐 아니라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여기는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의 토양 속에 교묘히 그리고 깊숙이 뿌리내린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도 실생활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그 삶 가운데 모범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도 진리를 인정하고 배우게 되는 법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실제 삶에서는 외식적으로 행하거나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어나오지 않으면, 교우들도 이원론적인 삶을 떨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네 가지 면에서 이원론이 더 극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욱:**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대로 실천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수들은 자신의 신앙대로 학문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등이 모두 성경적이어야겠지요. 교수님께서는 합신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꼼꼼히 읽고 새빨갳게 수정해 주셔서 '빨간펜'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논문을 많이 받아봐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인규:** 조직신학은 예습을 안 해오면 강의를 들어도 헤매니까, 미리 두 세 개씩 문제를 내 주어 답을 달도록 하고 그 답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답을 빨간 펜으로 수정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별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 다른 일에는 별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IVF 등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욱:** 그렇게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최용준 교수는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지요. 이러한 실천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 교회가 매우 부족해서 최근에 전도도 잘 안 되고, 기독교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족함을 기독교 세계관운동과 관련하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송인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 봤자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도 꽤 많이 있었죠. 저는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건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기독교 세계관“만”으로는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는 어느 한 과

목이나 분야, 예를 들어 기독교 세계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것을 위해서 조직신학도 있고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설교학, 성경신학, 기독교 상담 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협력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왜 유독 기독교 세계관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아야 할 분야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목들은 사람들의 실제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는 여러 과목과 분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교육이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세계관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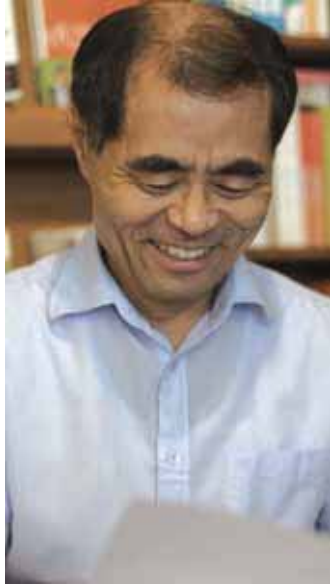
둘째, 기독교 세계관만이 개인 및 공동체의 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 실재는 그렇지 않지만 - 가정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실천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주 관심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개를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V나 영화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안내를 받는다고 합시다. 알버스 월터스의 책을 보면 구조와 방향을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즉 구조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바인데, 만약 TV나 영화에 나쁜 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구조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TV나 영화에 관한 우리의 문화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까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이 기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TV나 영화와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TV나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문제라면, 시간 사용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방면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독교 세계관을 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TV에 노골적인 성표현 등이 많이 나오는데 감상자의 차원에서 어떻게 자신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영적 훈련의 문제이지, 기독교 세계관 본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제작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문화의 제작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성적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검열의 정당성 등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결되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문화 사역과 영화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이 자신이 그 속에 있다 보니 개인 경건이 너무 약화되는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이하고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행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바뀌려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 시간 사용, 영성 훈련, 예술·포르노그래피·검열, 자녀 교육 등 - 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기독교 세계관이 다루는 주된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는데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기독교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시해야 할 것(또 이것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은 많은 경우 각자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자신의 영성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사용의 문제, 문화 사역자가 되는 것, 중독 문제, 아이 교육 문제, 감상자로서 시청 여부의 문제, 제작자로서 성 표현에 대한 문제 등은 사실상 기독교 세계관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을 기본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구조와 방향으로 어느 정도 문제의 열개를 잡아주고 사안별로 변화를 위한 실제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이러한 회복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개 교회에도 있어 보고 신학교에서도 있어 보니 한국 교회의 회복이나 갱신과 관련해 양쪽 모두 소홀히 여기는 부분, 즉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개 교회에서도 다루지 않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자 스프롤(R. C. Sproul)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www.ligonier.org)를 시작할 때 그 취지가 신학교와 교회의 갭을 메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주제를 50여 권 이상의 책과 교육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교회 내에 이런 갭이 있는 것을 목도하곤 했습니다. 신학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실천적인 부분을 다 보완해 줄 수 없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는 주로 성장 쪽으로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갭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탐구센터가 한국 교회의 갱신이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걸지만 않는다면,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기여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인식(또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승욱:**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욱:** 앞으로 어떤 사역에 힘쓰실 생각이신지요. IVF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을 새로이 맡으셨는데,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를 탐구하실 생각이신지요?

**송인규:** 한국 교회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이들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열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IV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IVF),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